buddhanews.com

자기 주인공에다가 모든 것을 포기해서 일임시켜라!

☞25면에서 계속

우주간 법계에서도 다 상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것이 이렇다 이것이 이렇다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팔만대장경이 이 세상 돌아가는 진리인데, 어디서 또 찾겠습니까? 항상 날마다 보고 있는데. 불교가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불교가 생활이고 생활이 불교고 종교가 생활이니까. 내가 근본이고 내가 원인이 되고 내가 바로 화두고 나라는 존재가 있기에 모든 존재가 있는 거지,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모든 존재가 어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 자신의 모두를 갖다가 포기하고, 포기하되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포기해서 일임시켜라 이겁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형성시킨 거니까 기계를 하나 만들어 놨다면 기계 만든 사람이 더 잘 고치지 기계 안 만든 사람이 더 잘 고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이 기계라면 기계 만든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린 재밌는 공부 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병 증세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도 벌써 '아이쿠, 이건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는데….' 하면 벌써 그건 그렇게 빠른 게 아닙니다. 딱 벌써 이거 그냥…. 병원에서도 전체 10%라면 3% 밖에는 자기가 책정을 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깐 7%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개를 꺄우뚱꺄우뚱하다가 자기가 의사로서의, 박사로서의 체면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병이다 이러곤 내놓는다는 얘깁니다. 그런다면 우리같이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 무슨 병이다 그러더라도 '아이, 그까짓 거….' 이렇게 하지만 딴 사람이 어디 그럽니까? '아이구, 이 병 걸렸으니 인제 큰일났구나! 시한부 인생이로구나!' 하고선 낙담을 하고 마음으로써 그렇게 될 때 그 병이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 병이. 막바로 그 병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악성이다 이러더라도 '이거는 주인공이 다 해 놓은 거니까 악성이고 뭐고 나발이고 없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거다!' 한다면 그냥 악성이고 뭐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 좀 할만한 사람들은요, 그냥 공부시키느라고 몸도 일부러 그냥 아프게도 허고 일부러 집안을 발칵 뒤집어도 놓고 이런다고요. 그러니 그 재료를 갖고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과연 그게 기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문 사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제 친구 하나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는 친구 맘 같지 않아나 봅니다. 글쎄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그 사람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하는데 과연 그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것도 자기가 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기적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이, 모르는 사람이 볼 땐 "참 너, 기적이구나!" 이러겠지만 내가 볼 때는 전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되는 것만 주인공이 한 거고, 되지 않는 거는 '아이구, 주인공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다 그 근본을 믿고, 현재의 내 몸뚱이 '자(子)'는 내 근본 '부(父)'를 항상 믿으면, 그 부는 '항상 잘되는 거 안되는 것도 다 부가 하신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한다면 안됐다가도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잘되게끔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를
> 앞세우지 마시고
> 내 마음의
> 그 주인공으로부터 밝음을,
> 그 빛으로 인해서
>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것이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실험이라고 하기보다도 숙제입니다, 그게. 잘되는 것만 하나님이 해 주고 잘 안되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해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오산이고 상당히 그건 빗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 것도 그 주인공이 하는 거고, 되는 것도 주인공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당신이 해 달라' 고 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또 '당신이 이렇게 하게 해서 감사하다' 고 감사함을 청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부와 자가 둘이 아니게끔 융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선 그걸 자기를 깨달아서 찾았다고 하는 거고, 찾아 가지고도 수없이 실험을 해서 그것을 자기가 포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기를 믿으라는데 자기는 안 믿고 만날 딴 데를 쳐다보고 믿고 딴 데를 생각하고 있고 그저 이름을 생각하고 있고, 말을 생각하고 있고…. 허공에다 그냥 그 이름만 가지고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백천 날 해 보세요, 그게 되나. 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신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을 두고선 남의 신을 청하느라고, 남의 신이 대답하나요?

보세요. 생활들 하면서 남더러 나를 어떻게 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 부모, 내 동기, 내 집안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도와주지, 바깥의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줍디까? 무슨 큰 일이 나면 안에 들어와서 부모와 형제와 자식과 이렇게 통과를 해 가지고, 토의를 해 가지고 이거 돈이 들 거면 돈이 들고 잘되게 할 거면 잘되게 하고 이러지 아니, 저 바깥의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고 합디까? 안으로 해요, 안으로! 조금 널리 생각하면 한 가정이지만 더 좁힌다면 나예요, 나! 나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신이 제가끔 다 바로 어머니의 신, 여러분의 신 각각 있지만, 신은 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한데 돌아가고 있으니까 마음은 마음대로 통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극하게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사랑 안 해요. 내가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한쪽이 기울어지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내기 이전 그 무한의 포괄된 부의 마음, 그 부의 마음과 지금 현재 내 의식 자체의 마음과 둘이 아니게끔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중요함을 아셔야 돼요.

마음의 여의주를 얻으려면

문 스님, 이 마음도리 알게 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출가를 해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허락하질 않아 그냥 이렇게 스님 법문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욕심이 많은 건가요? 반드시 금생에 이 마음의 여의주를 얻어 자유자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 마음의 여의주를 얻을 수 있겠는지요?

답 자주 했던 얘깁니다만 예전에 내가 상원사에 있을 당시에 천도를 시키면 항상 시식을 지냈습니다. 큰 돌이 이렇게 쭉 놓여 있는데 거기다가 그 밥이나 시식음식을 놓으면 까치나 새나 뱀이나 두꺼비나 올라오기 어려운데도 다 올라와서 고개를 쳐들고 다 먹었습니다, 염불소리를 듣고. 그럴 때에 그냥 머리들을 이렇게 들고 모두 먹었는데 그 뱀 종류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이듬해에, 삼 년이 지나고 보니까 고개를 들고 먹으러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돌 밑을 보니까 전부 허물을 벗은 겁니다. 전부 껍데기를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다못해 벌레들, 날아다니는 짐승들도 이 마음의 공부를 하는 짐승들이 있다 이 소립니다. 독사도 여러 질입니다. 독사가 새끼를 낳아 놓고 새끼한테 자기의 몸을 바치면서 새끼들이 클 때까지 그 몸을 먹고 자라게 하는가 하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새끼들을 뚝뚝 떨어뜨려 낳습니다, 잡아먹힐까 봐. 그러면서 내가 잡아먹히면 이 무명도 벗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그런 독사들처럼, 공부하는 독사들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무심히 들어 넘길 게 아닙니다. 우린 살아생전에 무명을 벗길 수도 있고 무명을 쐬울 수 있는 그런 원력도 있어야 벗길 수 있는 원력이 있는 거지, 무명을 쐬울 수 있는 원력이 없다면 벗길 수 있는 원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자재권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여의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렇게 모든 것을, 나를 죽이고 다 그 평등공법을 알고, 이 자비를 알고,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줄 알고, 나라는 것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열쇠가 주어지지, 그리고 여의주가 주어지지, 아무나 주어져서 그냥 톡톡 때려서 모두 잘못되게 하거나 나쁘게 하거나 이런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여의주도 방편의 이름이지마는 여의주 아닌 여의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열쇠라고 해도

> 과거의 업보나 가환이나
> 그런 모든 것을
> 녹여 버리게끔 해줄 수 있다면
> 여러분 스스로 밝아짐으로써
> 스스로서 생활이
> 곤궁해지지지도 않게 됩니다

됩니다. 아무나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그거는 못 얻는다 하더라도 선덕을 쌓아서 선업을 짓는다면, 그저 착하게 생각하고 그저 남과 나를 위해서 모두 선하게 착한 마음을 갖고 자꾸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런다면 그냥 선덕이 돼서 공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서 잘 이렇게 세세생생에 잘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끝내는 여의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문 얼마 전부터 절에 인연이 되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저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그런 모습을 어려서부터 봐 오면서 아버지에 대한 혐오감만 늘어 갔습니다. 대체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인연에 얽히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죄가 있다고 의식을 하고 '내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지.' 하고 '이렇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한 찰나죠!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을 가졌다면 그대로 그냥 될 것이고, 죄가 없으니깐 모두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한다면 그대로, 그대로 될 겁니다. 이 마음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하필이면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죄가 있다고 누가 말을 해 놨는진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안 지으려 하면 안 지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공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한 사이가 없어요, 죄를 지은 사이가 없어요. 왜냐? 자동차가 말입니다, 부딪쳐서 찌그러졌는데 그 차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습니까? 어때요? 기름이 없으면 차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 안 가면 차가 잘못해서 안 가는 겁니까? 어디가 고장 났으면 차가 잘못해서 고장 났습니까? 이 모습은 차와 같아서 자기가 한 사이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을 하고도 내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그건 나쁜 일 한 게 그대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떤 시련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련이 오지 않도록 그저 편안하게 요량 있게, 좀 현명하고 어디든지 대치할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가 있다 없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는 대로 관하시면서 '너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고 자꾸 관하세요.

어떠한 부당한 일이 있다. 예를 들면 엊그저께 회사를 잃고 어떤 남자가 울고 있는데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더군요. 취직을 하려 해도 취직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관하고 살면 다 되는 수가 있다고 그냥 그렇게 보냈지 뭐를 어떡합니까? 뭐 이 도리를 금방 알려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랬더니 편지로 전후사를 써서 보냈더군요. 난데없이 어느 친구를 오다가다 길에서 만나서 그 친구로 인해서 취직을 했다고요. 이것이 모두가 조그만 일 같지만 어떤 집들은 자손들이 서너 명씩 몸이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한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사는 겁니까, 그게?

하여간에 그런 도리 저런 도리 다 자기만이 할 수 있으며 또 구원을 청하는 것도 사람이 하기에 달렸죠. 마음을 같이 이렇게 내 주면 빠르고 혼자 하면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어려울 테죠. 그러니깐 될 수 있으면 스님들한테 관하는 걸 요량 있게 배우고 또 가정 얘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게 어려워서 그런다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죠, 뭐.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는 인생 살아나가는 것이 물 흘러 내려가듯 하니까 그냥 찰나찰나 화해서 자꾸 나투어서 그냥 그냥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때에 죄를 지었다, 어느 때에 잘못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가게 되는 것은, '과거 나' 와 '현재 나' 가 둘 아니게 통해서 해 나간다면 정신계로나 물질계로나 외려 남을 사랑하고, 음으로나 양으로나 남을 이익하게 보시하고 이렇게 나가지, 그렇게 나쁜 일을 안 하게 돼 있죠. 저절로 안 하게 됩니다.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09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기초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등
◆ 예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전문과정(4개월)
◆ 시련,대령,관욕,옹호게(신중작법104위),지장청,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유원숭,요잡작법
◆ 사 물 : 태징,북,광쇠,호적(태평소),전통의식타법
◆ 특 강 : 괘불이운,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달림(다비),예수재의식 등
라. 강주 : 김법운스님, 이현진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09년 3월 5일 오전 11시
◆ 개 강 : 2009년 3월 5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

불교 전통의식 수강생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서울범패 2기생 : 교육과정 1년
※ 영남범패 1기생 : 교육과정 6개월(고급반)

1.사물다루는법 : 도량석,조석예불,각단예불,각청(불공)시식
2.천도의식 : 49재,시련,대령,관욕,신중작법,상단권공,시식
3.각종바라작법(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
4.서울범패개강일 : 3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
5.영남범패개강일 : 3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매주 수 · 금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경우에 따라 요일변경)
6.자 격 : 승 · 속 관계없음
7.장 소 :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설법전
8.수업료 : 매월 10만원 교재비별도

접수연락처 전화 054)762-5888 / 팩스 054)762-5889
휴대전화 011-819-7464 총무국장(지공스님)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278-9번지 (2층)
한국불교태고종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수행도우미

기분좋은 환희심나는 체험으로
수행생활의 기쁨을 늘리세요



발로해
(특수기능성 양말)
신는순간 따뜻해진 발
노랗거나 갈라진 굳은살,
보들보들, 보송보송
피곤할 때 느끼는
발뒤꿈치, 발목아픔
즉시 해소
(절할때, 성지순례, 운전)



스트레칭 팔
절수행, 잠잘때 착용하면
어깨 결리고, 시리고, 벗벗함,
오십견과 스트레스 순간해소



청명고요(수행방석)
배에 힘이 모아져 안정된 자세와
집중력, 또렷함 유지
수험생, 고시생, 컴퓨터, 운전할때
졸음 피로 완전 해소

[호락호락팬티, 와선삼매요, 보석연꽃면티,
금강저조끼, 기도포, 팔관애원(손목,무릎보호대)]

서울법당 (02) 456-0035 부산법당(051) 583-7886
대구법당(053) 743-0063 광주법당(062) 375-3500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